



Korean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

끊임없는 도전, 한미장학재단의 여정과 미래 한미장학재단의 지난 55년간의 여정을 발판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한미장학재단은 미국 내 한국 학생들의 학업을 재정 지원하는 대표적 기관입니다. 한미장학재단은 1969년 초 Washington D.C.에서 소수의 유학생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국가 지원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일부 유학생들이 후배 유학생들에게 적게나마 재정적 도움을 주고자 뜻을 모아 설립되었습니다. 미국의 광활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 1969년 Washington D.C에서 시작된 한미 장학재단은 이후 서부(Los Angeles, CA) 지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동북부(New York, NY), 남부(Atlanta, GA), 중서부(Chicago, IL), 남서부(Houston, TX), 산악 지부(Denver, CO)를 포함한 총 7개 지부의 전국 규모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미장학재단을 맘앤아이가 찾아갔습니다.

 글/ YN Rhee Educational Contents Specialist

워드 피플_With People

맘앤아이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워드 피플 코너를 통해, 미국 전역과 지역 사회 곳곳에서 환경, 경제, 음식, 문화, 에너지, 교육,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과의 협력을 이루어내고,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을 소개합니다. 워드 피플로 소개되는 비영리 단체들의 귀중한 이야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참 의미와 행복을 깨닫고, 한 발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Korean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



현재 한미장학재단은 세 가지 목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학업 중인 한인 학생들의 학문적, 개인적 성취를 지원하고, 둘째, 미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로서 지역 사회 봉사를 장려하며, 셋째, 한국 문화유산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한미장학재단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한인 장학 재단이며, 재단 운영은 본부 격인 전국 이사회가 전반적 운영 규정과 지침을 정하며, 실질적 집행은 7개 지부로 구분된 지부별로 장학금 모금, 학생 선발, 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적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금 기금 대부분이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장학재단은 교육을 통한 지역 사회의 진일보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가관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비영리 기관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싶으나 실행 수단이 없을 때 한미장학재단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장학생 선발 과정을 신뢰하여 장학생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미주 한인 경찰 협의회(KABLE)에서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하여, 모금된 금액을 재단에 기부하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상호 협업한 바 있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의 장학금 프로그램은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로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 과정 학생에 중점을 두지만, 일부 지부에서는 고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의 후손들에게도 장학금 신청의 문호를 개방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전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선발은 연 1회 이루어지며,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장학생 평가 항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은 학생 및 가정의 재정 상태이며, 그 외 학업 성적, 에세이, 교수 추천서, 봉사활동 및 수상 경력이 포함됩니다. 각 지부 장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자가 결정되며, 지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8월 초에 심사하고 9월 중에 시상식을 통해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한미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자는 약 2,500달러에서 3,000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되며, 우수 성적의 학생은 최대 5,000달러의 특별 장학금을 수여 받기도 합니다. 또한 선발된 고등학생 수혜자들은 각각 500달러를 지원받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면 매년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장학생은 약간의 가점을 인정받아 먼저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장학재단 장학금의 수상 경쟁률은 꽤 높으며, 대부분 신청자가 매우 우수한 학





생들입니다. 따라서 학업 성적, 에세이, 추천서, 봉사 및 수상 경력 등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최소 1년간 노력하여 자격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도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빠뜨리거나, 대답을 다소 성의 없이 하여 낮은 점수를 받는 예도 있으니, 성실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인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고 상세히 설명하여 평가자의 공감을 얻는다면 장학생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미장학재단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금전적 도움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대상이 있고, 본인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도와주는 동포 조직이 있다는 사실은 마음의 큰 위안과 자부심을 심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학업과 일을 꾸준히 병행한 학생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새로운 꿈을 위해 용기를 낸 가장들, 팬데믹 이후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은 자녀들, 이들 모두에게 한미장학재단의 장학금은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일례로, 이민 2세로서 언어적 열등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함을 느끼던 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 장학금을 수여 받은 뒤 용기와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립 대학교로 편입,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는 등의 미담은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전 참전 미군의 자손들이 한미재단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대한민국에 대해 알게 되고 한국과 한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좋은 전해를 갖게 된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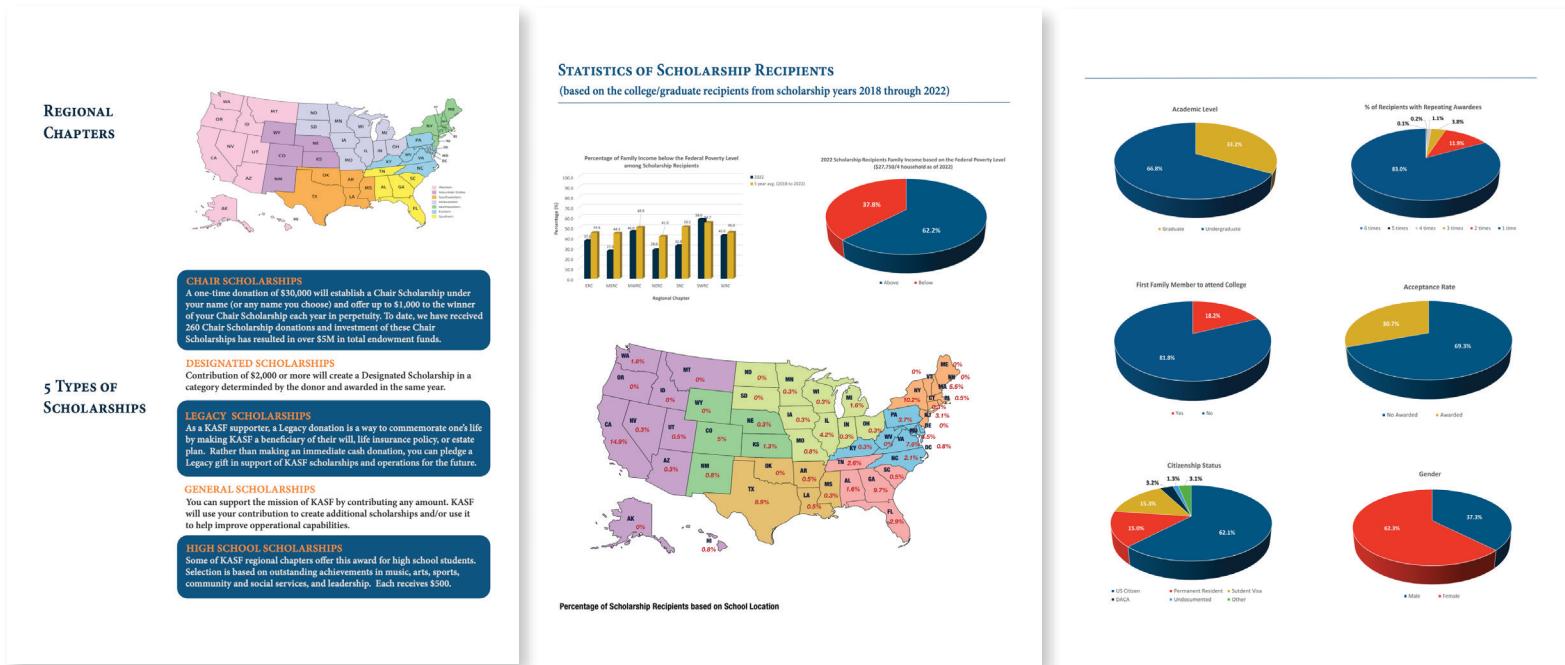
나아가, 한미장학재단은 장학생들의 특정 ‘니즈(needs)’에 맞춤화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부에 따라 상이하나, 일부는 장학생 커뮤니티를 만들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등 관계를 이어 나가도록 돋고 있으며, 그 외 수혜자들을 위한 재단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에서 한미장학재단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개설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이 재단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실현을 돋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추후 장학생들의 취업 기회도 넓힐 수 있는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 지원은 장학생들의



업적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년의 역사 동안 한미장학재단은 8천 명이 넘는 장학생들을 배출하였으며, 이들 중 다수가 공공 기관, 학계,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성공적 활동과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장학금 수혜자 중 일부는 한미장학재단의 임원 또는 기부자가 되어 그들이 받은 혜택들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현재 재단의 사명을 지속하고 운영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해 재단은 몇 가지 과제와 목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은 설립 반세기가 지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현재 약 \$5.5M의 기부금(Endowment Fund)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부금만으로 충분한 장학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부금 규모를 \$10M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현재 재단의 일차적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장학재단은 기업 후원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ia America와 협력 관계를 맺고, 2년째 30만 달러의 제공 후원금으로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후원의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한미장학재단은 기업 기부 또는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같은 대형 재단의 후원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학금 수여 외에도 수여자들을 위한 멘토십, 경력 개발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장학생들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수년 전부터 재단 운영에 20~30대의 한인 2세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학생은 물론 기부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2세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재단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장학금 모금 행사를 골프 대회, 음악회 등 지역 사회 후원 기금 마련 이벤트를 진행하고, 후원자들께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의 발전을 위해서, 각 지부의 특성을 유지하되 전국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미장학재단이 역사가 긴 재단이지만 여전히 재단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욱 많은 한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120년을 넘으면서, 많은 한인이 미국 내에 튼튼한 뿌리를 내렸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의 기부 문화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장학재단은 은퇴기에 속한 한인들의 유산 기부 및 성공한 한인들의 기부 유치에 더욱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미장학재단의 활동 참여 및 장학금 기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미장학재단 웹사이트(kasf.org)를 방문하시어, 본인이 속한 지부의 연락처를 찾아 연락하시거나, 하단 본부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KASF National Board
8300 Greensboro Dr., #L1-805, Tysons Corner, VA 22102
feedback@kasf.org | Tell: 703-608-KASF(5273)

*Please visit kasf.org for our 50th Anniversary video and testimonials from the previous Kia Scholarship recipients.